

아상블라주의 개념과 지리학적 함의

김숙진*

Assemblage and Its Geographical Implication

Sook-Jin Kim*

요약 : 최근 관계적, 물질적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아상블라주라는 개념은 현대 사회공간이론의 가장 친숙한 어휘가 되어가고 있다. 본 논문은 아상블라주 본연의 개념을 탐색하기 위해 먼저 개념의 전체적인 틀과 사유의 방식을 제공한 들뢰즈와 가타리의 작업에 주목한다. 유사개념과의 비교를 통해서 푸코의 장치 개념을 아상블라주의 한 유형으로 봄으로써 아상블라주가 탈영역화뿐만 아니라 (재)영역화라는 두 가지 모두의 성향에 의해 구성됨을 확인하였으며, 관계의 외재성은 아상블라주 이론이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과 같은 다른 형태의 관계적 사고와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상블라주는 분석적 측면에서 형성과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경험주의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고, 정치적 측면에서 아상블라주의 다양체(multiplicity)와 중첩결정에 대한 용인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다수의 정치적 프로젝트, 실천, 결과의 실질적 공존과 새로운 공간적 상상력에 개방적이라는 장점을 가진다.

주요어 : 아상블라주, 관계적, 물질적, 들뢰즈와 가타리, 장치, 행위자연결망 이론, 탈영역화, 재영역화

Abstract : Assemblage has become a popular concept in modern socio-spatial theories with relational and material turns.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concept of assemblage focusing on Deleuze and Guattari. By comparing similar concepts such as Foucault's apparatus and Actor-Network Theory, this article demonstrates that assemblage emphasizes not only deterritorialization but also (re)territorialization, and that the exteriority of relations is a critical aspect that differentiate assemblage from other relational spatial concepts. Assemblage can highlight the value of empiricism as an analytical tool, and be open to new spatial imaginations as well as multiple existences and possibilities of alternative political projects and practices.

Key Words : assemblage, relational, material, Deleuze and Guattari, apparatus, Actor-Network Theory, deterritorialization, (re)territorialization

1. 서론

최근 10여 년간 인문지리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아상블라주(assemblage)라는 개념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네트워크, 환경(millieu), 장치(apparatus), 콜라

주(collage)와 같은 개념과 부분적으로 연결되기도 하면서, 아상블라주라는 개념은 현대 사회공간이론의 가장 친숙한 어휘가 되어가고 있다. 아상블라주라는 용어는 지리학뿐만 아니라 고고학, 생태학, 미술사, 인문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인문지리학 내에서도 학자에 따라 다양한 방식

이 논문은 2013학년도 건국대학교 연구년교원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paper was written as part of Konkuk University's research support program for its faculty on sabbatical leave in 2013).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지리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Geography Department, College of Science, Konkuk University), sjkim@konkuk.ac.kr

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상블라주 개념을 사용하는 연구들은 ‘사회적인 것’을 물질적으로 이중적이며, 실천에 기반하고 있는, 창발적(emergent)이고 과정적인 것으로 재정의하고자 하는 시도에서이다(McFarlane, 2009).

지리학에서의 이상블라주와의 조우는 네트워크적 사유에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적 사유가 자본의 현대적 지위에 의해 모양 지워지기 시작하면서 관계성의 기능적이고 환원적인 버전을 제공하게 되었고, 차후의 주장들이 삶의 자본주의적 관리와 결탁하게 되면서, 많은 연구자들은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덜 획기적이지만 확실한 대안이 되는 이상블라주적 사유는 사회적인 것의 구성과 조직을 좀 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이해함으로써 다른 질문, 이슈, 개입, 정치를 배제하는데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상블라주적 사유는 생명정치, 글로벌 바이러스, 전쟁, 감시, 사회운동, NGOs 등의 다양한 성향들을 단순히 네트워크화된 조직, 연결, 분포의 형태와 동의어로 간주하는 세계화와 자본주의의 담론에 연루되고 있는 네트워크의 인식론적 함의를 바꿔 놓는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상블라주적 사유가 신경과학, 전자공학, 진화생물학과 자가적응형 시스템의 이론들, 양자 물리학과 수학적 모델링, 마케팅과 디지털 자본으로부터 유래한 매우 전문화된 지식에서 나오거나 이들 지식과 합성되었기 때문인데, 이런 모든 지식들은 통상적인 네트워크 개념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다(Dewsbury, 2011; Delanda, 2006). 따라서 이상블라주 관점에서의 사유는 흐름, 연결, 생성(becomings)에 의해 특징 지워지고, 작동 논리가 구조보다는 접혀짐(folds)에, 선형적이기 보다는 더 복잡하고, 변증법적이기 보다는 더 순환적이고, 전체주의적(totalising)이기 보다는 더 창발적이 이 세계에 모든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관계적 전환(relational turn)과 물질적 전환(material turn)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있는 지리학에서도 이상블라주 개념은 행위자연결망 이론(ANT, Actor-Network Theory)과 함께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언어(language), 재현(representation), 담론(discourse)이 1990년대의 주요 개념이었다면, 이상블라

주, 행위자연결망, 물질성(materiality)은 2000년대의 주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의 결과로서 지리학에서 의미에 대해 심취해 있었다면, 이제 물질성 - 객체, 신체, 물질 - 에 대한 관심으로 다시 방향이 옮겨갔다고 할 수 있다. ‘지리학의 재유물론화(rematerializing geography)’에 대한 요구는 정치지리(Dittmer, 2014; Meehan *et al.*, 2013; Squire, 2015), 페미니스트 지리학(Colls, 2012; Slocum, 2008), 도시지리학(Lees, 2002), 사회문화지리(Jackson, 2000; Whatmore, 2006), 자원지리(Bakker and Bridge, 2006) 또는 GIS(Leszczynski, 2009)와 같은 지리학의 세부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상블라주적 사유는 이러한 물질적인 것, 또는 사회-물질적인 것의 평가 복원에 선두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Muller, 2015). 특히 지리학에서 이상블라주 개념의 도입은 이분법적 존재론에서 관계적 존재론으로의 전환(Castree, 2003)에서 들뢰즈(Deleuze)의 철학을 받아들인 시그널이라 할 수 있다(Dewsbury, 2011).

이상블라주 개념을 적용한 수많은 연구의 홍수 속에서 연구자마다 이상블라주의 개념의 적용범위와 이해하는 방식에 다소간 차이가 있다는 인식하에, 본 논문은 이상블라주 본연의 개념을 탐색하기 위해 먼저 개념의 전체적인 틀과 사유의 방식을 제공한 들뢰즈와 가타리(Deleuze and Guattari)의 작업과 시각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상블라주와 유사한 개념으로 또 다른 포스트구조주의적 접근법 중 하나인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장치(apparatus)개념, 그리고 최근 지리학뿐만 아니라 과학기술학, 사회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유의 방식으로 또 분석적 도구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ANT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 이상블라주 개념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탐색 과정 중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경험연구들을 소개하면서 이상블라주가 어떻게 사유의 방식으로 지리학 연구에 공헌을 할 수 있는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상블라주 개념에 천착하기 전 지리학에서 이상블라주의 개념을 도입하게 된 맥락으로서 관계적 전환과 물질적 전환을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2. 관계적 전환, 물질적 전환, 그리고 이상블라주

1) 관계적 전환

이상블라주 개념의 등장과 광범위한 적용은 지리학에서의 관계적 전환과 물질적 전환이라는 큰 흐름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리학에서의 관계적 전환은 공간, 장소, 스케일, 네트워크와 같은 지리학의 중요개념들에 대한 고민과 이론화 작업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유클리드적 기하학에 근거한 절대적 공간관에서는 공간과 그것을 구성하는 물질 또는 사회적 과정은 엄밀히 구분되며(따라서 공간은 독자적이며 이들을 담는 용기에 해당), 물질적 대상들과 사회적 과정은 이 공간에 어떤 작용도 가하지 못하며 그런 의미에서 이 공간은 절대적이다. 이에 반해, 상대적 공간관에서는 공간은 이들을 구성하는 물질 또는 사회적 과정과의 관계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다르게 규정된다(Jones, 2009).

이러한 상대적 공간 개념에 대해 하비(Harvey, 1973)는 일찍이 좀 더 미묘한 구분을 한 바 있다. 오직 대상들이 존재하고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존재한다는 아인슈타인적 상대적 공간 개념과 라이프니츠(Leibniz)의 방식을 따른 관계적 공간이라 명명한 공간개념이 그것이다. 라이프니츠의 방식을 따라 하비는 관계적 공간을 “한 대상이 자기 안의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한에서만 그 대상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런 의미에서 대상들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설명한다(Harvey 1973, 13). 하비가 이러한 관계적 공간 개념을 제안한 이유는 아인슈타인적 상대적 공간 개념은 사회적 현상과 현실의 문제를 설명할 경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착안한 데에 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서처럼 물리적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속력(시간)과 질량에 따라 다른 공간이 구성된다는 관점에서는, 공간의 관찰자나 측정자가 준거 틀(예를 들어 비용거리, 시간거리, 수단거리 등)을 달리함으로써 상이한 상대적 위치와 공

간을 나타내게 된다. 즉 다양한 공간의 생산과 구성이 가능한 것이다. 하비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구성되고 이해된 공간들을 일관되게 통합하려 할 때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임동근 역, 2008; 이현재, 2012). 즉, 상대적 공간 개념에서는 원칙적으로 다양한 관계에 따라 상이하게 공간이 구성되지만, 특정 한 가지 관계(다시 말하면, 한 가지 준거 틀)를 선택하는 경우 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구성하는 다른 관계들은 배제할 수밖에 없어진다. 그 결과 관찰자 또는 연구자들은 상대적 공간 개념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관계들을 동시에 고려하기가 불가능한 것이다(임동근 역, 2008, 196).

이에 반해, 관계적 공간 개념은 다양하고 복잡한 다수의 관계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임동근 역, 2008).¹⁾ 각각의 모나드(monad, 무엇으로도 나눌 수 없는 궁극적인 실체)가 전 우주를 자기 안에 포함한다는 라이프니츠의 철학처럼, 관계적 공간에서 “한 대상은 자기 안에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를 이미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계적 공간 개념 안에서 행위자의 위치는 하나의 중요한 대표적 관계를 통해 단편적으로 정해지기 보다는 행위자가 관계된 다양한 관계들을 응축하고 있는 지점으로 이해된다(이현재 2012, 236). 예를 들어, 가정이라는 공간은 자본주의 축적체제에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곳이거나 아니면 성적 이분법에 근거한 사적인 혹은 여성의 공간으로 상대적으로, 단편적으로 상징될 것이 아니라, 그 둘 모두가 중첩되어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생성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공간이다(이현재, 2012, 237).

이러한 관계적 공간 개념은 기존의 인본주의의 지리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본질주의적 장소 개념에도 균열을 내었다(박배균, 2010). 매시(Massey, 1993; 1997)는 ‘진보적 장소감(progressive sense of place)’과 ‘지구적 장소감(global sense of place)’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장소를 경계가 지워진 고유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장소를 개방적인 것으로 보고 장소 안에서 또는 장소를 통해서 존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실천, 관계의 산물로 볼 것을 역설했다.²⁾ 관계적 공간 개념은 포스트구조주의의 학자

들의 연구를 통해 1990년대 후반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천착되었다(박경환, 2014). 특히 쓰리프트(Thrift, 1996; 2004; 2008)의 작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는 사회과학 전반의 문화적 전환과 맞물린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이라는 흐름에서 공간에 대한 관계적 사유를 발전시켰다. 그는 탈근대 페미니스트 학자인 버틀러(Butler, 1990)³⁾의 수행성(performativity) 개념을 정교화 함으로써 비재현적(non-representational) 공간을 사유하였다(Crang and Thrift, 2000; Thrift, 2008). 즉 그는 기존의 역사주의적 발전과 진보 개념, 그리고 사회 현상의 이면에 추상적 구조가 있다고 가정하는 습관을 문제시하며, 어떤 것을 대신하는 이미지가 지로서 ‘재현’을 포기하며 대신 감정과 정동(affect), 실천, 수행에 의해 공간이 생성됨을 주장한다(Thrift, 2004). 쓰리프트의 공간론은 공간에 대한 위상학적 개념으로의 이동을 함의하기도 한다. 사회현상 이면에 있는 것으로 가정되는 추상적 구조의 존재와 행위자와의 이분법적 관계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는 그에게 거시와 미시, 글로벌과 로컬과 같은 스케일 개념은 문제적이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사회(공간)을 수많은 실천과 비재현적 수행이 형성하는 시공간적 네트워크로 볼 것을 제안한다. 관계적 공간 개념, 위상학적 공간개념으로의 이동은 ANT와 아상블라주적 사유의 등장으로 보다 진일보하는데 이들의 등장은 물질적 전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2) 물질적 전환

198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사회과학 전반의 문화적 전환은 담론과 의미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해석학적, 해체적 접근과 같은 생산적인 방법론을 가져옴과 동시에 지리학적 분석에 새로운 메타포(예를 들어, 언어, 담론, 재현, 텍스트로서의 경관)를 제공하였다. 또한 문화적 전환은 인식론적 사고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사실로 당연시 여기거나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이는 많은 것들(예를 들어 인종이나 젠더)이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생산된 개념으로 실재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것이다(Saldanha, 2007; Robbins and Marks 2010). 이 과정에

서 이러한 구성과정의 부화 장치(인큐베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차별적인 영역 또는 현실의 범주로서 ‘사회적인 것(the social)’은 별개의 자율적인 것으로 다뤄지게 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당연시 여겨지던 진실의 근원은, 사회적인 존재의 해석적 능력 밖에 있는 물질적 영역에서 발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물질적인 것, 인간 이상의 것(more-than-human), 또는 비인간(non-human)의 것은 사회지리학의 분석에서 소거되게 된 것이다(Robbins and Marks, 2010, 178). 그러나 물질적인 것이 인문지리학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포스트구조주의 학자들은 모든 담론들이 제도과 실행에서 구체화됨을 보여줬고(Foucault, 1980), 맑시스트 지리학자와 급진적 실재론자들은 노동과정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강조해왔다(Smith, 1996; 김숙진, 2010; 김숙진, 2006). 이러한 분야에서의 연구들은 물질적 조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 경제적, 사회적 조건들에 대한 기회를 침해하거나 생산하는지 관심을 유지해 왔다. 또한 문화생태학, 정치생태학, 위험연구 같은 분야에서는 토양, 토지 피복, 물의 흐름, 에너지, 폐기물과 같은 비인간 조건들을 이해하기 위한 지속된 노력을 견지해 왔다(Robbins and Marks, 2010, 178; Robbins, 2004). 그러나 이러한 지리학 분야들에서도 자연주의적 설명전략을 탈자연화하려는 시도에서 물질적인 것을 설명에서 분리해 내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more than human’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분야에서조차 자연적 설명은 특정 결과와 지식의 사회적 뿌리를 탐구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자연과사회 연구뿐만 아니라 문화지리, 도시지리, 페미니스트지리 등에서 ‘물질적인 것(the material)’의 부활이 목격되는데 이는 사회역사적 구성에 있어 물질적인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Bakker and Bridge, 2006).⁴⁾ 인간 경험의 본질과 비인간에 의한 상호구성에 대한 지리학적 관심은 사회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이라 명명되어 2004년 Environment and Plan-

ning A 특집호(vol.36)로 논의되기도 했다.

이러한 관심은 관계론적 존재론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물질적 관심사에 대한 공간을 만드는 이론적 작업의 급증을 동반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물과 인간, 그리고 물질 존재와 경험이라는 더 넓은 세계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철학적 전통(들뢰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주장한 것처럼 실재의 영역(세계)과 재현의 영역(책), 주관성의 영역(저자)의 삼분법적 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이상블라주는 이러한 각각의 질서로부터 나오는 어떤 다양체(multiplicity) 간의 연결을 구축하는 것이다(Deleuze and Guattari, 1987, 25; Robbins and Marks, 2010, 179에서 재인용).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계속되는 이론적 탐험과 관계론적 지리학에 대한 급증하는 연구 아젠다는 ‘물질적 전환’에 대한 장을 마련했고, ‘more-than-human’ 지리학의 전조가 되었다.⁵⁾ 이러한 접근법은 담론보다는 실천(practice), 의미보다는 정동(affect), 정체성보다는 지식(knowledge)을 강조한다.

3. 이상블라주

1) 들뢰즈-가타리적 이상블라주

이상블라주는 프랑스의 철학자인 들뢰즈와 가타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개념이다. 『앙티오이디푸스(Anti-Oedipus)』(1983)에서는 욕망기계⁶⁾라는 개념에 가려졌지만, 후속작이면서 가장 잘 알려진 『천개의 고원(A Thousand Plateaus)』(1987)에서 개념이 정교화되었다. 들뢰즈는 우리의 존재론적 세계관에서 행위 능력(agency)에 대한 주관적 개념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욕망, 영토, 철학, 신체, 이동에 관해서 경계 지워진 사유들을 해체하기 위해 이상블라주라는 개념을 소개했다(Deleuze and Guattari, 1987). 들뢰즈는 이상블라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것은 수많은 이종적 조건으로 구성되는 다양

체(multiplicity)인데 이것은 다양한 특성들—즉 나이, 성, 통치(reigns)—을 가로질러 그들 간의 연결(liaisons), 관계(relations)를 수립한다. 그래서 이상블라주의 유일한 단위는 공동 기능하는 그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공생(symbiosis)이며, 동조(sympathy)이다. 그것은 분파(filiations)라기 보다는 동맹(alliances), 합금(alloy)이며, 세습(successions) 또는 혈통(lines of descent)이 아닌 전염(contagions), 유행병(epidemics), 바람(wind)이다 (Deleuze and Parnet, 1987, 69; Muller, 2015, 28에서 재인용).”

즉, 이상블라주는 이종적인 개체들이 한동안 일을 같이 하도록 정렬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행위능력은 이상블라주의 각 구성원의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무리, 즉 사물의 환경 또는 특정한 배열방식의 것인데, 이들을 통해 작용력과 궤적이 부여되고 변형된다(Bennet, 2005, 461). 들뢰즈와 가타리에게는 미리 결정된 위계가 존재하지 않고, 이상블라주의 이면에 있는 그 어떠한 조직적 원칙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개체들—인간, 동물, 사물, 물질—은 우선 같은 존재론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Muller, 2015). 그러나 그로츠(Grosz 1994, 167)가 언급한 것처럼, ‘세계가 계층이 없고 완전히 평평하다기보다는, 위계가 물질과 물질의 본성과 가치의 결과라기보다는 이질적인 물질들의 조직 방식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상블라주 개념을 좀 더 분석적인 차원에서 보기 위해서는, 4가(tetravalency)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듀스버리(Dewsbury, 2011)는 들뢰즈-가타리적 이상블라주 개념을 어떻게 실행할지 중요한 열쇠는 바로 이 4가 개념을 통해 작업하는 것이라 한다. 4가는 화학과 생물학에서 나온 개념으로 요소나 분자를 결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원자가를 의미하는데, 이상블라주는 이러한 결합의 4가지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기계적 내용물(machinic content), 집합적 표현(collective expression), 영역화(territoriality), 탈역역화(deterritorialization). 이와 같은 4가지 유형의 원자가로 구성된 4가 체계는 두 개의 축을 따라 작동한다. 첫째 축은 신체, 행동, 열망(내용물)이 혼합된 기계적

이상블라주와 행동과 진술(표현)의 언술의 집합적 이상블라주의 그것 사이에 작동하며, 둘째 축은, 영역화를 안정화시키는 분할선(lines of articulation)과 탈영역화의 탈주선(lines of flight)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나 이상블라주 개념은 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설명을 위한 아이디어들의 체계라기보다는 임시적인 분석적 도구였다(Muller, 2015). 들뢰즈와 가타리는 어떤 측면에서도 거대이론을 추구하지는 않은 것이다.⁷⁾ 따라서, 이상블라주는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있다(Dewsbury, 2011, 149).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상블라주의 특징을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Muller, 2015).

1. 이상블라주는 관계적이다. 이상블라주는 새로운 전체를 형성하기 위해 함께 모인 다양한 개체들의 배열이다. 중요한 점은 들뢰즈에게 이상블라주는 외재성의 관계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이것은 대상들(인간, 물체 등)이 그들 간 관계로부터 자율성을 가진다는 것을 함의한다. 둘째, ‘구성부분들의 특성이 전체를 구성하는 관계를 설명하지 않는다’(Delanda, 2006, 10).
2. 이상블라주는 생산적이다. 이상블라주는 새로운 영역적 조직, 새로운 행위, 새로운 표현, 새로운 행위자와 새로운 실체를 생산한다. 이는 이상블라주가 주로 모방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즉 세계에 대한 재현이 아니라는 것이다.
3. 이상블라주는 이종적이다. 이상블라주에는 어떤 것이 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 지배적인 개체가 무엇인지에 관한 추정이 없다. 따라서 자연-문화 이분법을 넘어서는 사회-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Bennett, 2010).
4. 이상블라주는 탈영역화(deterritorialisation)와 재영역화(reterritorialisation)의 역동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탈영역화/재영역화는 이상블라주의 중심 축이다. 이상블라주에서 재영역화되는 가장자리가 안정화되고, 탈영역화의 최첨단이 그것을 휩쓸어 간다(Deleuze and Guattari, 1987, 88). 이상블라주

는 그들이 나타날 때 영역을 설정하고 유지하지만 또한 계속적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변형되며, 붕괴된다.

5. 이상블라주는 욕망이다. ‘욕망은 선천적으로 단편적이고 분열된 부분적 개체들을 지속적인 흐름과 연결시킨다(Deleuze and Guattari, 1983, 6). 그래서 이상블라주는 물질적(corporeal) 요소를 갖는다.

이상블라주에 대한 좀 더 섬세한 탐색은 다른 개념들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2) 푸코의 장치(apparatus)개념과의 비교

푸코는 18세기부터 유럽인들에게 권력이 기존의 착취적이고 폭력적인 주권과 극심한 감시와 규율권력의 관례화를 보완하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았다. 여기서 푸코는 근대 사회와 국가는 중요한 사건들(출생, 사망, 추수, 이익, 범죄, 온전한 정신)의 규칙성(regularity)을 통치하고 정상화하는 영역과 같은 공간에 초점을 맞추는 ‘안전장치(apparatus of security)’의 생산자라기보다는 생산물임을 보여준다. 들뢰즈에게 이상블라주처럼, 푸코에게 장치는 동계의 개념들 - 행위(conduct), 제도, 환경(milieu), 레짐(regime), 통치성 - 속에서 나타난다. 그는 이와 같은 근대적 형태가 목회자와 그 행위에 대한 고대의 개념까지 거슬러 올라갈 뿐만 아니라 외교적-군국주의와 넓은 의미의 감시활동의 전통에 까지 미치는 계보를 보여주었다. 특히 후자를 설명하면서 장치라는 용어 대신 이상블라주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세력의 역동성에 기초하여 정의된 정치적 논리를 이행하기 위해, 서양사회는 세력의 합리화에 근거하여 이해될 수 있는 두 가지의 이상블라주를 마련했다. 이 두 가지는 군사적-외교 장치와 경찰 장치이다(Foucault, 2007, 296; Legg, 2011, 129-130에서 재인용).”

이상블라주와 장치의 애매모호한 혼용은 그 다음의 강의⁸⁾에서도 계속되는데, 외교와 전문적 군대를

첫 번째 기술적 아상블라주라고 일컫는데 대해, ‘경찰’을 국가 이성에 따른 새 통치술로서 두 번째 기술적 아상블라주로 묘사한 것이 그것이다. 레그(Legg, 2011)에 따르면, 푸코는 아상블라주라는 용어를 체계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번역과 연구 심포지엄 등을 통한 들뢰즈와의 협업으로 몇몇 용어와 개념들을 받아들였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장치와 아상블라주는 같은 개념으로 보아도 무방한 것인가? 달리 표현하자면 장치를 앞 절에서 살펴본 아상블라주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푸코가 아상블라주를 사용한 예를 보면, 흔히 그렇듯 탈영역화 또는 불안정화의 사건 또는 과정을 가리키기 위해 아상블라주를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장치와 아상블라주는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가?

레그(2011)는 아감벤(Agamben)과 들뢰즈가 푸코의 장치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탐색함으로써 아상블라주 개념과의 관련성에 대해 천착하였다. 아감벤은 푸코가 1977년 장치 개념을 완전히 이중적인 일련의 담론, 제도, 형태, 규제, 법, 진술서 또는 도덕적 명제로 기술했던 것을 지적한다. 이러한 장치의 형성은 구체적 긴급 상황에 대응하여 전술적인 방법으로 기능하는데, 권력의 작동에 각인될 뿐만 아니라, 지식의 제한에 연결되기도 한다. 아감벤(2009)은 장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나는 장치를 생명체의 제스처, 행동, 의견, 또는 담론을 담아내고, 특정 목적에 맞추며, 결정하고, 가로막으며, 형체를 만들며, 조정하거나 고정시키는 능력을 가진 어떤 것이라고 부른다.”(Agamben, 2009, 14; Legg, 2011, 130에서 재인용)

여기서 장치, 생명체, 주체는 연계된다. 아감벤의 1998년 연구에 따르면, 장치는 조에(zoe, 그냥 살아 있음 혹은 생물적 생명)가 바이오스(bios, 사회적, 정치적 생명)가 되는 기제로 이해된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거대한 현대의 장치의 축적과 확산에 대응할 것인지 질문을 던지며 포획된 것들을 ‘신성모독’(대상을

원래의 용도로 되돌리는 것)을 통해 해방시킬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근대 장치들로 인해 이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아감벤의 글을 읽으면, 장치는 그 이중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상블라주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나 곧 구속(entrapment)의 기제가 된다(Legg, 2011, 130).

이러한 아감벤의 장치에 대한 해석은 들뢰즈의 것(1992)과 비교가 된다. 들뢰즈의 장치에 대한 해석은 거의 아상블라주와 비슷하다. 처음부터 들뢰즈는 장치를 ‘엮혀있고, 다중선형적인 앙상블’이라 정의한다(Deleuze, 1992, 159). 각각은 다른 본성을 가진 라인들을 가지며, 이들은 갈라지거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들뢰즈가 생각하는 장치는 -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 가시성(visibility), 명확한 진술(enunciation), 힘(force), 주관화(subjectification)의 측면을 가지며, 장치들의 작동이 제한되지 않는다. 전지적 선견지명을 가지고 명령, 점유하기보다, 장치들은 뒤죽박죽되며 서로 섞여, 주체성을 생산하는데, 이러한 주체성은 탈주하여 다른 다양성에 재삽입되기도 하며, ‘새로움’에 대한 계속적인 재고를 하게 된다(Deleuze, 1992, 162-3; Legg, 2011, 130에서 재인용). 장치들이 매우 역동적이고 복잡하다면, 왜 푸코가 저항의 승리가 아닌 권력의 승리를 쓰는 걸로 읽히는지 들뢰즈는 궁금해 했다. 들뢰즈는 장치들의 라인들이 두 그룹으로 나뉜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지층화(stratification), 또는 퇴적의 라인들이고, 둘째는 현재 또는 창의성으로 이끄는 라인들이다. 푸코가 첫 번째 기술한 것과 관련이 있는 이유는 그것들이 푸코 저서의 주제들이기 때문이고, 저서들에서 다루지 않는 두 번째는 주로 그의 인터뷰와 행동주의의 주제였기 때문이다(Legg, 2011, 130).

아감벤과 들뢰즈의 장치에 대한 해석에서, 장치는 어원적으로 그리고 계보학적으로 규제와 통치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지만, 그들의 다양체(multiplicity)는 필연적으로 오해, 저항, 비행의 공간을 열어놓는다.⁹⁾ 아상블라주 이론의 유용성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안정성이 불안정성만큼 조합된다(assembled)는 것이다. 레그(2011)는 장치를 아상블라주의 한 유형으로 봐야 하지만 재영역

화, 줄무늬(단층 조선), 스케일링, 통치의 경향이 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제안한다. 이상블라주와 통치성 연구를 함께 사유하는 시도에서 명백한 것은 들뢰즈가 이상블라주가 무질서, 평활화(smoothing), 탈영역화, 단기적 효과와 탈스케일링(de-scaling)뿐만 아니라 질서와 홈패임(striation), 재영역화, 장기적인 효과, 스케일링으로 이어짐을 보여준다는 점이다.¹⁰⁾ 같은 맥락에서 듀스버리(Dewsbury, 2011)는 영역화를 안정화시키는 분할선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이는 탈주선이 좀 더 자주 회자되는 상황에서 들뢰즈의 이상블라주는 항상 유동적이고, 파괴적이고, 끊임없이 활동적인 것으로서 부적절한 비판을 받기 때문인데, 이는 이야기의 절반에만 해당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상블라주적 사유는 어떤 정체성을 표현하며, 비위계적인 방식으로 영역화와 탈영역화라는 두 가지 모두의 성향에 의해 구성되고 이를 통해 영역을 주장한다.

3) ANT와의 비교

1980년대 과학지식의 생산과 과학논쟁을 설명하기 위해 발전된 ANT는 사실상 들뢰즈와 가타리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은 것이기에 ANT와 이상블라주는 개념과 주장에서 많은 유사점을 공유한다(김숙진, 2010; 박경환, 2014). 먼저, ANT 역시 인간과 비인간 개체들의 관계가 새로운 행위자와 새로운 방식의 행위를 생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ANT에서는 모든 개체들이 - 그것이 원자이건 정부이건 - 애초에 똑같은 존재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들 간에 수립된 관계(associations)에 따라 누가 다른 개체보다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라투르(Latour, 2005)는 ANT를 관계의 사회학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상블라주적 사유와 유사하게 ANT는 사회-물질의 과정적인 특성을 강조한다. 사회적인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끊임없는 질서를 향한 시도가 있을 뿐이다. 또한 ANT와 이상블라주적 사유 모두 권력과 정치의 공간적 차원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¹¹⁾ 왜냐하면 두 접근법 모두 어떻게 특정한 방식으로 질서가 나타

나며, 어떻게 다소간 불안정한 방식으로 이들이 결합하며, 공간에 걸쳐 어떻게 뻗어나가는지, 공간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는지, 또 어떻게 서로 허물어지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Muller, 2015; McFarlane, 2011).

이러한 유사점에 근거하여 일부 연구자들은 ANT와 이상블라주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거나, ANT를 구성하는 개체와 부분들의 일시적 묶음 상태를 단지 묘사하기 위해 이상블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는 이상블라주가 좀 더 철학적이거나, ANT는 경험적 연구에 적용 가능한 좀 더 구체적인 개념적, 방법론적 장치를 제공해 실증적인 측면이 강한 이상블라주의 전우쯤으로 여기기도 한다(Muller, 2015).¹²⁾ 그렇다면 이 두 개념 사이에 어떤 의미 있는 차별점은 없는 것인가? 최근 이상블라주를 분석의 핵심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차용한 연구들의 증가는 이상블라주 개념이 ANT와 가지는 차별성에 주목한 결과로 보인다.

이상블라주 이론이 ANT와 다른 형태의 관계적 사고와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은 바로 ‘관계의 외재성(the exteriority of relations)’이다. 들뢰즈는 사회적 질서(social order)의 견고성과 변형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것으로 바로 관계가 그들의 조건에 외부적이다(‘relations are external to their terms’)는 점을 든다. 보통은 관계를 특정 형태의 접촉과 교환을 통해 원자적 개체들 간에 형성되는 2차적 연결로 보거나, 개체들은 그들의 관계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고 본다. 즉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관계의 변화는 관련된 사물을 변화시키게 된다. 그러나 들뢰즈는 관계에 대한 대안적 개념을 제안한다. 사물, 또는 개체는 그것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조건 지워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관계는 관련된 조건(terms)으로부터 자율성을 가진다. 들뢰즈에게 이상블라주라는 용어는 이종적인 부분들이 특정 형태를 지닌 일시적이고 개방된 전체(whole)로 되는 상호작용을 기술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블라주는 일련의 구성 부분들로 환원되지 않고, 유기적 통일체로 인식되지 않는, 다양한 몸체의 할로킨 재킷 또는 패치워크인 것이다(Anderson et al., 2012, 176-177).

들뢰즈에게 이상블라주의 통일성(unity)은 다양한 부분들이 매끄럽게 또는 격렬하게 동종성으로 포괄되는 유기체적 통일성 또는 전체 시스템의 통일성이 아니다.¹³⁾ 들뢰즈는 이상블라주의 내적 역동성이라는 개념을 유지하면서 불균질적인 모든 요소들이 모여 들게 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즉, 들뢰즈는 관계들이 필연적으로 어떤 유기체를 구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종적인 개체들이 어떤 형태의 일시적인 관계로 되는 과정을 강조한다. 정리하자면, 이상블라주는 차이를 가로질러 존재하는 일련의 개체들의 일시적 유지(holding)임과 동시에, 관계와 조건들의 변화에 따른 이동과 변동의 계속적인 과정인 것이다(Anderson *et al.*, 2012, 177).

여기까지 보면, 이상블라주의 특성은 ANT와 흡사한 점이 많다. 실제로 라투르(2005)는 ANT가 네트워크 관계(association)를 추적하는 작업에 선행하는 그 어떤 선형적인 관계의 형태를 상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라투르의 ANT와 이상블라주 이론 모두 사회-공간 관계가 어떤 고정된 형태의 것으로 선형적으로 환원되는 것에 대하여 주저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ANT처럼 이상블라주는 그 구성부분들로 환원되지 않는 창발적, 복합적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바로 위에 언급한 ‘관계의 외재성’에서 드러나며 독립체의 특성(properties)과 능력(capacities)의 구분에 의해 설명된다.¹⁴⁾ 조건이 변하지 않더라도 관계가 변할 수 있다는 들뢰즈를 인용하며 Delanda(2006)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강조한다.

“외재성의 관계는 구성부분의 특성(properties)이 전체를 구성하는 관계를 결코 설명할 수 없고, 관계는 관계가 구성부분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관계가 성립되는 [구성 부분]의 특성을 관계의 원인으로 가질 수 없다(Delanda, 2006, 10-11).”

다른 관계적 사고의 경우, 구성부분들 간의 결합이 현재 모습의 전체를 만드는 데 논리적으로 필수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는 반면, 이상블라주의 경

우 이러한 관계를 우연적으로만 필수적으로 본다. 행위자연결망도 그것의 구성부분들을 완전히 동화시키는 이음새 없는 매끄러운 전체가 되어, ANT가 수행하는 서술(설명) 외부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Delanda, 2006). 즉, ANT는 행위능력(agency)이 관계(associations)의 형성을 통해 유발되는 중재된 성취물이라 주장하는데 이 관계들의 외부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개체는 전체(aggregates)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행위자연결망을 생산하기 위한 협력자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이 되는 것은 관계를 통해 무엇이 정치적으로 되는가의 문제이다. 물질의 정치적 중요성은 주어지기보다, 관계적이고 실행적이며 우연한 성취물인 것이다. 그러나 외재성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이상블라주적 사유는 이상블라주의 구성부분들이 관계의 외부에 고유한 특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들이 이상블라주에 영향을 미치고 이상블라주의 형태를 좌우한다고 상정한다. 이상블라주적 사유는 예측이 불가능하며 구성부분들의 특성을 넘어서는 일련의 개방적 능력을 상정한다(Anderson *et al.*, 2012, 179-181). 그 결과 관계를 통해 세계를 보는 ANT는, 관계의 외부에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모양지우는 것들에 대하여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¹⁵⁾ 이런 점에서 이상블라주의 핵심적 개념인 ‘관계의 외재성’으로부터 시작함으로써 형식화된 연합과 방대한 비형식화된 영역간의 구분을 극복할 수 있다. 즉, 독립체는 우연적으로만 필수적인 관계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이 관련된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독립체들은 그러한 관계/조건들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는다. 반면에, 독립체들은 어떤 한 이상블라주에서 떨어져 나가 또 다른 이상블라주의 부분이 될 수 있다(Delanda, 2006).

4. 지리학 연구에서 이상블라주가 가지는 함의

지금까지 개념적인 측면에서 이상블라주의 함의

와 다른 유사 개념과의 차별성에 천착하였다면, 이 절에서는 아상블라주 개념을 적용한 몇몇 주요한 경험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아상블라주가 가지는 분석적, 정치적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아상블라주의 분석적인 측면에서의 이점은 경험주의의 가치를 재조명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맥캔(McCann, 2011)에 따르면 경험주의는 상세한 경험적 연구가 이론의 아래에 있는 어떤 것, 개념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체험의 우위성에 대한 강조는 더더욱 아니다. 그 보다는 로즈(Rose, 1999)가 언급한 바와 같이 경험주의란 발명의 방법론, 즉 조우의 대상으로서 개념의 발명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라는 것이다(McCann, 2011, 145에서 재인용). 그것은 특정 사례들의 독특한 요소들에 대한 존중을 통해 작은 차이들과 약한 일반성을 그려내는데 주목하는 방법인 것이다.

아상블라주 개념은 무엇보다 형성(formations)과 과정(processes)을 증시한다는 측면에서 아상블라주 개념을 적용한 분석적 연구는 경험주의의 가치를 재조명하는데 적격이다. 택지개발기본계획을 둘러싼 구성요소들의 이질성을 강조한 맥걸크와 다울링(MacGuirk and Dowling, 2009)의 연구는 이를 잘 보여준다. 그들은 호주 시드니의 택지개발을 도시 신자유주의의 상징적 표현으로 보는 경향, 그리고 도시 현상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 우선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추동하는 성향 모두에 반대한다. 이들은 택지개발 기본계획이 다양한 기관과 행위자, 실천들의 아상블라주를 통해 실현되는 다수의 프로젝트와 논리들로 생겨난 사회적 형성임을 강조하기 위해 아상블라주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 개념을 통해 그들은 신자유주의적 후퇴라는 획일적 설명(즉 거대이론이 추구하는 일반성)보다는 주택개발의 잠정성(provisionality)과 어떻게 이러한 개발이 상호작용하는 실천들과 행위자, 기관들의 ‘덜 일관된(less than coherent)’ 결과물이 되는지를 기술할 수 있었다. 즉, 앤더슨 등(Anderson *et al.*, 2012, 175)이 주장하듯이, 아상블라주가 견고한 질서를 생산하는 구성의 과정, 전체주의적 실천과 과정들로 생각될 수 있는 것들의 사실상 실제적 비결정성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의 사례인 것이다.

맥캔(McCann, 2011)은 도시 정책 이동성의 측면에

서 어떻게 로컬 정책 행위자가 최상의 정책 모델과 실행에 대한 학습을 통해 글로벌 커뮤니티와 관계를 맺는지, 어떻게 이러한 모델들이 동원되고, 변화되는지, 이러한 이동성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조건 지워지는지, 이들이 어떻게 특정한 장소를 모양 짓는지에 주목했다. 맥캔은 위상학이라는 개념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상블라주라는 개념을 차용함으로써, 어떻게 주요 행위자와, 아이디어, 기술들이 도시에 생산적으로 참여하게 되는지, 또 한 장소의 행위자가 자신의 로컬 정책들을 구성할 때 다른 곳의 모델을 언급함으로써 부재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존재하게 되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부재의 실질적 존재’는 라투르가 얘기한 ‘멀리 떨어져서 작동하기(act at a distance)’의 예가 된다.

그는 벤쿠버의 불법마약으로 인한 피해 완화 정책을 들뢰즈와 가타리가 지칭한 바 있는 ‘진정한 발명품(veritable inventions)’으로 규정한다. 왜냐하면 이 정책은 노동 - 지역내부와 외부에서 사람, 제도적 역량, 전문지식, 모델, 기법, 기술, 정치적 자양물, 활력(sustenance)을 의도적으로 불러 모음 - 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즉, 가깝거나 먼 곳으로부터의 자원의 모음, 즉 아상블라주를 통해 미래에 대한 대안전 비전과 이러한 가능한 미래를 실현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그 자체로 권력이 드리워진, 정치적 과정이라는 것이다. 모여든 부분들이 새로운 장소에서 어떻게 결합이 될지에 대한 선택이 협상되고, 경쟁이 이루어지며, 선택이 이루어진 뒤, 또 다시 협상이 더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상블라주의 정치’는 ‘모범예시(exemplar)의 정치’를 수반하는데 여기에서는 아상블라주를 구성하는 특정 부분들과 관계(즉, 이상적으로 여겨지거나 성공한 사례)에 우선순위가 주어지게 된다. 이것이 벤쿠버의 마약 피해 완화 정책의 경우에서도 특정 도시나 국가 이름이 붙여진 채로 모범예시 실천 논의에 더 잘 스며드는 실천의 ‘모델들’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정치적 측면에서의 이점은 아상블라주의 ‘다양체와 중첩결정에 대한 용인’이 특정한 연구 또는 투쟁의 대상(예를 들어 벤쿠버의 약물 정책)을 통해 벌어지는 다수의 정치적 프로젝트, 통치의 양식, 실

천, 결과의 실질적 공존에 개방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정치적 지향성은 깁슨-그라함(Gibson-Graham, 1996)의 헤게모니적 단일체로서의 자본주의에 대한 반근본주의적 시각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맥캔(McCann, 2011)과 같은 류의 분석은 다른 헤게모니적 단일체인 마약과의 전쟁(과거 벤쿠버의 약물 정책)을, 흔히 그렇게 보이는 것과는 달리, 내적으로 일관성이 있지도 않고, 완벽하지 않은 여러 집단과 이해들에 의해 구성된, 우연적 이상블라주로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연구자뿐만 아니라 변화를 모색하는 도시 정책가, 사회운동가들에게 이상블라주적 사유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또한 복수의 형태로서의 도시 이상블라주를 상징하는 것, 다시 말해서 도시성이 만들어지는 일종의 성취물이라면, 그것은 또한 다양한 형태의 도시성을 상상할 수 있는 - 진보적이건 급진적이건 보수적이건 배태적이건 간에 - 가능성의 결정적인 영역일 수 있다. 이상블라주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도시성이 실상과 가능성간의 작용으로서 성취되는 다수의 실천들에 주목하게 하는데, 그럼으로써 비판적 이론과 비판적 도시성의 폭넓은 역사에 반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능동적이고 이질적인 노동과 자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창발적이고 과정적이며 물질적인 도시이며, 이들은 지속적으로 상상되어지며 다른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McFarlane, 2011, 652).

이상블라주의 '다양체'에 대한 용인은 공간성 차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지리학적 연구에 있어 이상블라주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공간적 상상력과 실천에 개방적이라는 점이다. 관계적 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관계적 공간에 관해 천착한 많은 연구 성과들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제솅 등(Jessop *et al.*, 2008)은 사회공간 관계의 다형적이고(polymorphic), 다차원적인 특성을 인식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사회-공간 관계를 특정한 한 형태로 귀속시키는 오류를 범한다. 즉, 이들은 네 가지 차원의 사회-공간 관계 - 영역, 장소, 스케일, 네트워크 - 를 인식하며 각각은 그것과 관련된 사회공간적 구조화 원칙과 사회공간 패턴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물론 제솅 등(2008)의 시도는 어느 정

도 실재론적 측면을 가미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 세계가 변동성에 의해 갈라진다고 보는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상블라주와 어느 정도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제솅 등(2008)의 경우 사회-공간 관계를 일련의, 이미 알려져 있고 합의가 이루어진 패턴과 원칙, 형태로 환원한다는 점에 있다. 즉, 영역, 장소, 스케일, 네트워크의 네 가지 측면과 다른 패턴이나 원칙, 형태에는 한정된 가능성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상블라주는 형성의 과정을 중요시하고, 관계적 형태나 형성에 관한 선험적 주장을 하지 않는다. 이상블라주의 시작점은 일련의 이상적인 형태가 어떻게든 조직되는 중립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바로 '맥락'이며, 일시적 통일성이 이중적인 현상의 조합(agencement)으로 나타나는 조건이다. 즉, 이상블라주가 추구하는 것은 질서가 나타나고 다양성과 변형 가운데에서도 그 질서가 지속되는 특정한 방식에 대한 설명인 것이다(Anderson *et al.*, 2012, 176).

영국 중앙정부와 주요 도시지역인 남동부지역 간에 권력의 재편성을 통한 밀튼 케인즈(Milton Keynes)의 형성을 연구한 앨런과 코크레인(Allen and Cochrane, 2007; 2010)의 연구는 이런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들의 연구는 지역 거버넌스의 영역적 다중스케일성을 강조해 온 기존 연구를 관계적, 위상학적 방향으로 이끈 선구적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정치적 행위자, 공공, 사적 행위자들의 이상블라주에 기반한 위상학적 관점을 통해 어떻게 분산된 형태의 거버넌스가 공간적으로 불연속적인 지역을 생성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이상블라주는 중앙정부와 로컬정부의 요소들이 기존의 스케일이나 네트워크 개념이 함축하는 것처럼 지역의 '위'에서, '아래'에서, 또는 '옆'에서 작동하기 보다는 지역 안에서 '머무르게(lodged)'되는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공간적 확대(extension)보다는 공간적 내포(intension)에 대한 선호, 위상학에 대한 선호에 있어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접근법이 국가의 위계적 권력이 재스케일화되거나 재분배되기보다는 어떻게 공간적 범위(reach)의 관점에서 재조립되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관련된 정치에 대한 이상블라주적, 위상학적 이해는 더욱더 복잡한 제도

적 배열이 펼쳐지는데 있어 새로운 권위의 등장 뒤에 무엇이 놓여있는지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특정한 공간적 개념에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블라주를 폭넓은 서술어로 갖는 것은 새로운 공간성을 인식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다양한 공간적 상상력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지닌다 하겠다.

5. 결론

최근 관계적 존재론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인 것’이라는 개념에 대한 재고찰과 재정의의를 가져왔다. 사회적인 것은 독특하고, 구별되며, 명확히 다른 범주의 실재(reality)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 그것은 라투르가 얘기하는 움직임, 이동, 변형, 번역, 등록의 이름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정의는 권력이 담긴 사회현상이 단일한 개념적 요소, 위치 또는 사물이라기보다 물체, 신체,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는 세계의 결과물이라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물과 인간, 그리고 물질 존재와 경험이라는 더 넓은 세계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철학적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이상블라주 지리학’이라 불릴 만큼 현대 사회공간이론의 핵심 개념으로 부상한, 들뢰즈와 가타리로부터 소환된 이상블라주의 지리학적 함의를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들뢰즈-가타리의 용어로 이상블라주는 정태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사물과 인간, 물질들의 조우와 관계의 혼성물을 배열, 조직하는 것을 함께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상블라주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상블라주는 주로 세 가지의 상호 연관된 과정들을 강조하기 위해 쓰여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이상블라주는 모임, 분산의 과정을 강조한다. 특히 여기서는 분산되기도 하고 뒤엎혀 복잡하고 임시적인 사회물질적 실천들을 모이게 하고 재모이게 하는 노동에 주목한다. 이 과정에서 이상블라주는 자연스럽게 공간성과 시간성을 드러낸다. 사물과 인간, 물질, 그리고 이들의 부분들은 특정

한 국면에 한데 모이다가 이내 분산하거나 재정렬하며, 장소에 따라 그리고 관점에 따라 그 모양을 바꾼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이상블라주 개념에서 탈영역화와 재영역화를 통해 이를 설명한다. 둘째, 이상블라주는 행위능력을 사회적인 영역에 있는 것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관계의 효과로 설명한다. 이상블라주의 장점은 세계의 변화 잠재력에 대한 세심한 배려인데, 이것은 변화가 단지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만 의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부분이고, 습관을 통해 우리가 매일 에워싸는 세계의 물질성을 통해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또한 이상블라주는 시간에 따라 다른 정도로 서로를 횡단하거나 사로잡으며 스스로 이상블라주를 뛰어넘는 복잡하고 불균등한 궤적을 함축하는데, 이런 측면은 이상블라주에서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놓여있는지, 이것들이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관한 질문에 미시적인 경험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이상블라주는 결과로 생긴 형성물이라기보다는 창발성을 함축한다. 이상블라주의 장점은 권력을 복수의 공존으로 바라보는데 있다. 즉, 이상블라주는 중앙권력이나 균등하게 배분된 권력보다는 권력을 항상 변형되는 복수로 본다(Li, 2007; McFarlane, 2009).

이러한 측면에서 이상블라주 개념과 푸코의 장치 개념과의 관계설정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장치는 어원적으로 그리고 계보학적으로 규제와 통치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지만, 이상블라주와 장치 개념을 함께 사유하는 시도에서 장치를 이상블라주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것은 매끄러운 공간, 탈영역화로만 주로 대변되는 이상블라주에 대한 인식에서 질서와 재영역화, 장기적인 효과, 스케일링의 가능성을 재조명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와 더불어 관계의 외재성은 이상블라주 이론이 ANT와 같은 다른 형태의 관계적 사고와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다. 이것은 대상들이 그들 간 관계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구성부분들의 특성이 전체를 구성하는 관계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의한다. 따라서 이상블라주적 사유는 예측이 불가능하며 구성부분들의 특성을 넘어서는 일련의 개방적 능력을 상정한다.

경험연구를 통해서 본 이상블라주가 가지는 지리

학적 함의는 먼저 분석적 측면에서 형성과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경험주의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다는 점, 정치적 측면에서 이상블라주의 ‘다양체와 중첩 결정에 대한 용인’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다수의 정치적 프로젝트, 통치의 양식, 실천, 결과의 실질적 공존에 개방적이라는 점이다. 이상블라주의 ‘다양체’에 대한 용인은 공간성 차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이상블라주적 사유는 관계적 사고에 의해 드러난 다양한 종류의 공간적 개념 - 영역, 흐름, 네트워크, 지역, 리즘, 스케일 등 - 중 특정한 공간적 상상력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이상블라주적 접근은 어떻게 이러한 공간적 형태와 과정들이 집결되고, 장소에 유지되며, 특정 가능성을 열거나 닫는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관한 설명에 주안점을 두며, 다양한 공간적 상상력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지닌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상블라주 개념이 세계를 이해하는 극적으로 다른 방식을 구성하는 반면, 계속 늘어나는 차별화되지 않는 이상블라주가 제시되어, 결과적으로 단편적 전용과 증빙위 이론화로 귀결되는 위험한 경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 1) 그러나 하비의 관계적 공간 개념은 사회적 행위자가 물리적 대상보다 더 복잡한 시공간적 관계를 갖는다고 우위에 뒀으로써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의 대칭적 존재론에 근거한 ANT나 이상블라주적 사유와는 차이를 보인다.
- 2) 매시는 장소에 대한 보다 최근의 저작(2005)에서 이러한 장소에 관한 관계론적 개념을 더욱 발전시켰다.
- 3) 버틀러는 기존 페미니즘 이론가들의 섹스-젠더 이분법을 비판하면서 여성이 계층과 인종 등 개인의 여러 측면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구성된 복잡다단한 사회적 구성물이라 역설했다. 즉 그녀에 따르면 젠더는 수행적인 것이다 (Butler, 1990).
- 4) 가령 문화지리학에서 일상생활과 소비의 문제를 다룬다거나(Crang, 1996), 도시지리학에서 도시의 삶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흥미의 재개는 건조환경의 물질적 조건에 대한 관심을 의미한다. 페미니스트들의 구체화된 경험에 대한 연구는 신체의 사회-물리적 장소, 그리고 물질적 장소에 기반한 신체의 위치성을 다루는 것이다.

- 5) 로빈과 마크(Robbins and Marks, 2010)는 이상블라주 지리학이라는 용어를 최근의 ‘more-than-human geography’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성에 있어 물질적 요소의 역할에 주목하는 다양한 접근법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즉 라투르의 행위자연결망 이론, 하라웨이의 페미니스트지리학 외에도 맵스의 신진대사론, 미첼의 계보학적 연구도 포함한다.
- 6) 들뢰즈와 가타리의 ‘욕망 기계(desiring machines)’는 일종의 이상블라주이다. 엔트로피를 불러일으키며 해체하는 것은 그러한 기계의 본성이다. 그러므로 이상블라주는 유한하지만 특정한 또는 구별적인 수명, 즉 시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이상블라주는 본질적 특성이 없다. 이상블라주는 차이를 생산하며, 모든 질적인 차이점의 토대이자 표현이다(Marcus and Saka, 2006).
- 7) 그러나 이상블라주 이론을 구성하려는 노력들이 존재한다. 대표적 인물로 Delanda(2006) 참조.
- 8) 통치성이라는 개념은 1976년부터 1979년까지 진행된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에서 주로 발전되어 레그(legg, 2011)는 통치성과 관련된 장치 개념을 이들 강의 내용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 9) 장치를 이상블라주와 동일시하는 들뢰즈의 시각과 달리 다른 학자들은 여전히 이 두 개념사이의 차이에 주목한다. 즉, 장치, 레짐 또는 통치 기술과 같은 푸코의 개념들과는 달리, 이상블라주는 결과로 생긴 형성물이라기 보다는 창발성을 함축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상블라주는 푸코의 인식론적 사유보다 더욱 복잡적이고 일시적인 설립체임이 강조되는 것이 그것이다(Dewsbury, 2011).
- 10) 엘든(Elden, 2009, xxvii)은 세계화와 탈역역화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들뢰즈와 가타리가 계속되는 탈역역화와 재역역화의 복잡한 양상을 항상 강조해 왔음을 지적한다.
- 11) ANT의 위상학적 공간개념으로서의 의의에 대한 최근 연구로 최병두(2016) 참조.
- 12) 가령, 계산의 중심(centre of calculation), 올리곤펀(oligopticon), 블랙박스, 불변의 이동물, 번역, 또는 오버플로우(넘침)와 같은 용어들은 관계의 형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ANT의 주요 이론가들은 이러한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점이 ANT가 경험적 연구에 적용하기 쉽도록 만들었다.
- 13) 이 점은 유기체적 비유에 의존하는 사회정치적 구성 모델들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시스템 이론이나 분자생물학, 정보 이론과 같은 유기체 모델들은 그것이 사회적인 것이건, 생물학적이건, 정보이건 간에 유기체의 경계라는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시스템 이론에서는 사회적 시스템 또는 생물학적 시스템의 기관들은 유기체의 경계를 강화하도록 기능한다(Anderson et al., 2012, 177).

- 14) 데란다(2006)는 독립체의 특성과 능력을 구분함으로써 아상블라주의 부분과 전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구성부분의 특성이 주어지고 알려지더라도, 그것의 능력은 개방적이고 예측불가능하다. 특성은 실질적이고 실재적인 상태인 반면, 능력은 특성으로부터 추론될 수 없는 일련의 개방적인 잠재력을 형성한다. 이는 능력이 다른 상호작용하는 대상의 특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구성요소들의 특성에 의존하면서도, 특성들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이다(Delanda, 2006, 11).
- 15) 라투르가 관계의 외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관계(associations)와 함께 라투르는 아직 형식화되지 않고, 도량형적 사물에 관여되지 않았으며, 다루어지지 않고, 조사되지도 않았으며, 동원되지도 않은, 주관화되지 않은 것을 상징하기 위해 '이상한 형태의 플라즈마(strange figure of plasma)'라는 용어를 언급했다(Latour, 2005, 244).

참고문헌

- 김숙진, 2006, "생태환경공간의 생산과 그 혼종성(hybridity)에 대한 분석: 청계천 복원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9(2), 113-124.
- 김숙진, 2010,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통한 과학과 자연의 재해석," 대한지리학회, 45(4), 461-477.
- 박경환, 2014, "글로벌 시대 인문지리학에 있어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의 적용 가능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7(1), 57-78.
- 박배균, 2010, "장소마케팅과 장소의 영역화: 본질주의적 장소관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3), 498-513.
- 이현재, 2012, "다양한 공간개념과 공간 읽이의 가능성 - 절대적, 상대적, 관계적 공간개념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3(4), 221-248.
- 임동근(역), 2008,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문학과 과학사(Harvey, D., 2006, Spaces of Global Capitalism, Verso, New York).
- 최병두, 2016, "행위자-네트워크이론과 위상학적 공간 개념," 공간과사회, 25(3), 125-172.
- Agamben, G., 2009, *What is an apparatus? And other essays*,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
- Allen, J. and Cochrane, A., 2007, Beyond the territorial fix: Regional assemblages, politics and power, *Regional Studies*, 41(9), 1161-1175.
- Allen, J. and Cochrane, A., 2010, Assemblages of state power: topological shifts in the organization of government and politics, *Antipode*, 42(5), 1071-1089.
- Anderson, B., Kearnes, M., McFarlane, C., and Swanton, D., 2012, On assemblages and geography, *Dialogues in Human Geography*, 2(2), 171-189.
- Bakker, K., and Bridge, G. 2006, Material worlds? Resource geographies and the 'matter of natur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0(1), 5-27.
- Bennett, J., 2010, *Vibrant matter: a political ecology of things*,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NC.
- Braun, B., 2006, Environmental issues: global natures in the space of assemblag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0(5), 644-654.
- Butler, J., 1990, *Gender Trouble*, Routledge, New York.
- Castree, N., 2003, Environmental issues: relational analogies and hybrid politic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7, 203-211.
- Colls, R., 2012, Feminism, bodily difference and non-representational geographie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7(3), 430-445.
- Crang, M. and Thrift, N., 2000, *Thinking Space*, Routledge, New York.
- DeLanda, M., 2006, *A new philosophy of society: assemblage theory and social complexity*, Continuum, London.
- Deleuze, G., and Guattari, F., 1983, *Anti-Oedipus*, Translated by Brian Massumi,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Deleuze, G., and Guattari, F., 1987, *A Thousand Plateau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Deleuze, G., and Parnet, C., 1987, *Dialogues*,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 Deleuze, G., 1992, What is a dispositif, in Armstrong, T. J., (eds.) *Foucault: philosopher*, Harvester Wheatsheaf, New York, 159-168.
- Dewsbury, J-D, 2011, The Deleuze-Guattarian assemblage: plastic habits, *Area*, 43(2), 148-153.
- Dittmer, J., 2014, Geopolitical assemblages and complexit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8(3), 385-401.

- Elden, S., 2009, *Terror and territory: The spatial extent of sovereignt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Foucault, M., 1980,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Harvester Press, Brighton.
- Foucault, M., 2007,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lectures at the College de France 1977-78*, Palgrave Macmillan, Basingstoke.
- Gibson-Graham, J. K., 1996, *The end of capitalism (as we knew it): a feminist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Blackwell, Cambridge, MA.
- Grosz, E., 1994, *Volatile bodies: toward a corporeal feminism*,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 Harvey, D., 1973, *Social Justice and the City*, Edward Arnold, London.
- Jackson, P., 2000, Rematerializing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Social & Cultural Geography*, 1(1), 9-14.
- Jessop, B., Brenner, N., and Jones, M., 2008, Theorizing sociospatial relation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8, 389-401.
- Jones, M., 2009, Phase space: geography, relational thinking and beyond,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3(4), 487-506.
- Latour, B., 2005, *Reassembling the social*,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Lees, L., 2002, Rematerializing geography: the 'new' urban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6(1), 101-12.
- Legg, S., 2011, Assemblage/apparatus: using Deleuze and Foucault, *Area*, 43(2), 128-133.
- Leszczynski, A., 2009, Rematerializing GIScienc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7(4), 609-615.
- Li, T. M., 2007, Practices of assemblage and community forest management, *Economy and Society*, 36(2), 263-293.
- Marcus, G.E., and Saka, E., 2006, Assemblage, *Theory, Culture & Society*, 23(2-3), 101-109.
- Massey, D., 1993, Power-geometry and a progressive sense of place, in Bird, J., Curtis, B., Putnam, T. and Tickner, N. (eds.), *Mapping the Futures: Local Cultures, Global Change*, Routledge, London, 59-69.
- Massey, D., 1997, A global sense of place, in Barns, T. and Gregory, D. (eds.), *Reading Human Geography*, Arnold, London, 315-323.
- Massey, D., 2005, *For Space*, Sage, London.
- Massey, D., 2011, A counterhegemonic relationality of place in McCann, E. and Ward, K., (eds.), *Mobile urbanism: cities and policy-making in the global ag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MN, 1-14.
- McCann, E., 2011, Veritable inventions: cities, policies and assemblage, *Area*, 43(2), 143-147.
- McFarlane, C., 2009, Translocal assemblages: space, power and social movements, *Geoforum*, 40(4), 561-567.
- McFarlane, C., 2011, The city as assemblage: dwelling and urban spac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9, 649-671.
- McGuirk, P. M., and Dowling, R. 2009, Neoliberal privatisation? Remapping the public and the private in Sydney's masterplanned residential estates, *Political Geography*, 28(3), 174-185.
- Meehan, K., Shaw, I., Graham, R., and Marston, S. A., 2013, Political geographies of the object, *Political Geography*, 33(March), 1-10.
- Muller, M., 2015, Assemblages and Actor-networks: Rethinking socio-material power, politics and space, *Geography Compass*, 9(1), 27-40.
- Robbins, P., 2004, *Political ecology: A critical introduction*, Blackwell, New York.
- Robbins, P., and Marks, B., 2010, Assemblage Geographies, in Smith, S., Plain, R., Marston, S.A. and Jones III, J.P., (eds.), *The SAGE Handbook of Social Geographies*, 176-194, SAGE, LA.
- Rose, N., 1999, *Powers of freedom: reframing political thought*,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Saldanha, A., 2007, *Psychedelic White: Goa Trance and the viscosity of ra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Slocum, R., 2008, Thinking race through corporeal feminist theory: divisions and Intimacies at the Minneapolis Farmers' Market, *Social & Cultural Geography*, 9(8), 849-869.

김숙진

- Smith, N., 1996, The production of nature, in Robertson, G., Mash, M., Tickner, L., Bird, J., Curtis, B., and Putnam, T., (eds.), *FutureNatural: Nature/Science/Culture*, Routledge, New York, 35-54.
- Squire, V., 2015, Reshaping critical geopolitics? The materialist challeng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41(1), 139-159.
- Thrift, N., 1996, *Spatial Formations*, Sage, London.
- Thrift, N., 2004, Intensities of feeling: towards a spatial politics of affect, *Geographiska Annaler Series B*, 86, 57-78.
- Thrift, N., 2008, *Non-Representational Theory: Space, Practice and Affect*, Routledge, New York.
- Whatmore, S., 2006, Materialist returns: practising cul-

tural geography in and for a more-than-human world. *Cultural Geographies*, 13, 600-609.

교신: 김숙진, 05029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지리학과(이메일: sjkim@konkuk.ac.kr)
Correspondence: Sook-Jin Kim,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Science, Konkuk University,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KOREA 05029 (e-mail: sjkim@konkuk.ac.kr)

최초투고일 2016. 6. 3

수정일 2016. 6. 18

최종접수일 2016. 6. 25